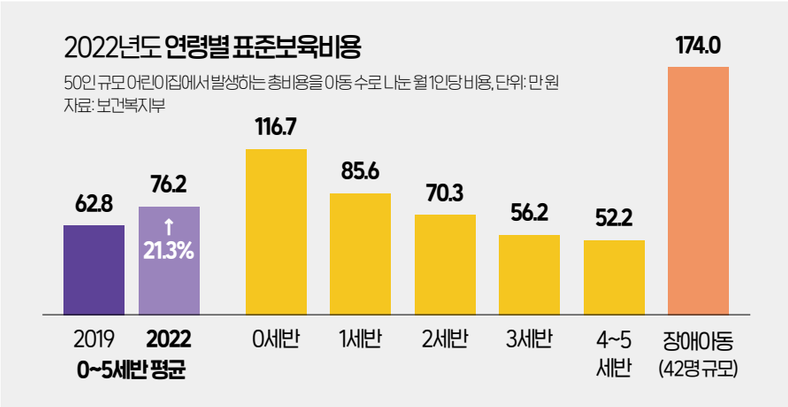
0~5세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1명당 '76만2000원'

2019년 62만8천원比 21% ↑ 연령 올라갈수록 증가폭 커 장애아 174만원 '비장애 2배'



정부가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에 비해 2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표준보육비용은 비정기적인 연구용역 형태로 조사돼왔으나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2022년 4~12월 처음으로 법정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2천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8천원 대비 21.3%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0세반 116만7천원, 1세반 85만6천원, 2세반 70만3천원, 3세반 56만2천원, 4~5세반 52만2천원이다. 연령별 차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교구비, 식사량에 따른 급간식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2019년 대비 증가율은 0세반부터 4~5세반까지 각각 14.7%, 19.9%, 21.2%, 30.1%, 31.8%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폭이 컸다.

그럼에도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간식비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서 5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급간식 재료비, 연료비 등 물가 상승과 함께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등 2019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안전·환경 개선 요구에 맞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관련 비용이 추가 반영됐고 시간외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도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으로, 일반 아동 평균의 2.28배였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일반 어린이집 대비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가 적고, 교사의 경력이 많아 인건비가 높게 산정됐으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 기준, 장애아동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 도구·재활치료 교구 등의 항목이 비용에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한번 발표하면 다음 발표까지 해당 값을 그대로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이를 개선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 보정하기로 했다.

인건비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인 호봉 값 변화를 반영하고, 급간식비·교재교구비·시설비·관리운영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한다.

이에 따라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매년 보정된 표준보육비용을 계산,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이 차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육료가 현장의 필요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분 보정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자현 기자 yne1490@daum.net

포항시 신중년사관학교, 새 학기 힘차게 출발

포항시 평생학습원은 지난달 31일 대강당에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형철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신중년사관학교 개강 및 제1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 공연으로 재학생 어르신들은 오케스트라 연주, 댄스팀 공연 등 신중년사관학교 전공과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으며, 재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축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중년사관학교는 포항시에서 201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2년제 교육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복을 입고 2년 동안 전공과(기악, 국악, 생활 음악 등)를 선택해 배우면서 새로운 꿈을 펼치는 뜻깊은 학교다.

특히,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는 뱃머리 평생학습원과 함께 출발해 올해로 제10기 신입생을 맞이하면서 포항시 평생학습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시 신중년사관학교 개교 10주년 및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100세 시대 끊임없는 지식습득과 자기 계발을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현 기자

포항지역아동센터 '우리 함께 연주한 Day' 발대

포항지역아동센터가 지난달 29일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발대식 및 토론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발대식은 △개회식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파트별 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 김형철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최명환 포항시 복지국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사회와의 공유를 통해 문화자원 발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한편 '우리 함께 연주한 Day'는 2016년부터 진행됐으며, 문화 소외 계층의 아이들이 음악교육의 고른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포항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자현 기자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제63차 정기총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제공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지부장 김성대)는 지난달 29일 경북도보훈회관 6층 강당에서 제63차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 이상흔 대구보훈병원장, 최규태 경북교육청 행정국장 등 내·외빈 11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형동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의 제63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기총회가 경상북도지부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고 보훈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축전을 보냈다.

한편 상이군경회 회원 자녀 및 손자녀 4명에게 중앙회 회장이 지급하는 백의장학금 4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고 경북지부 자체에서 지급하는 대흥장학생 2명에게도 1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봄철 낙석위험 점검

2일 오후 북한산국립공원 암릉 지역에서 여성 산악인 오은선 씨, 국립공원, 산악안전지원단 관계자들이 낙석위험 제거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

中企 산재 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대상 도입비용 최대 80% 3천만원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다.

노동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에 예산 250억원을 배정했다.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이다.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가 대상이다. 신청은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분기 총공사 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 현장에서 24명이 숨져 작년 같은 기간(16명)보다 50.0%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총공사 금액 1억~50억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23명이 숨져 작년 같은 기간(27명)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감독하기로 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는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산호 기자 banksy@kakao.com

직장인 3명 중 1명 공짜로 야근했다

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직장갑질119는 '공짜 야근'이 만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엽 기자 chomsky00@gmail.com

(주)국도건설, 울진군 죽변면에 소화기 기부

울진군 죽변면은 최근 (주)국도건설로부터 죽변면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99세대에 대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화기 100대를 기부받았다.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는 산불감시원들이 주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방문 점검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것이 다수이다.

이에 기부된 소화기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배부 및 사용법 교육으로 초기화재 진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국 국도건설 대표는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처로 2022년 3월에 발생한 대형산불 참사와 같은 재난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여가부, 3년에 한 번씩 전액 지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석 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221곳과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정고시가 치러지는 오는 8일에는 전국 시험장 앞에서 꿈드림센터 직원들이 건강검진 신청을 받고 검진 방법을 안내한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직접 전화해 검진을 안내하고, 카카오톡 알림톡도 발송할 예정이다. 5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스타그램 홍보 계정을 통해 학교 검진항목 및 비용, 신청방법, 검진기관을 안내하는 온라인 홍보도 할 계획이다. 5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인증하면 5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준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전액 국고 지원으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받으려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사이트(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자현 기자

실 종 아 동 · 장 애 인 찾 기 캠 페 인

김 경 실
(당시 3세 2개월, 현재 51세, 여)

함께하면 제보처☎ 국번없이 112
만날 수 있습니다

발생일자 1975년 5월 1일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특 징 눈동자에 하얀점이 있음. 이마가 매우 넓음.

자료제공처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